

# ‘결혼 긍정적’ 청년 3명 중 1명 뿐

### 통계청, 청년 의식변화 조사... 절반 이상 “자녀 필수 아냐” 결혼 안 하는 이유 1위 ‘자금 부족’, 2위 ‘필요성 못 느껴’

청년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10년 전에는 5명 이상(56%)이었으나 현재는 3명(36%)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청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발표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작년 5월 기준 36.4%로, 10년 전인 2012년(56.5%)보다 20.1%p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50.0%)보다 13.6%p 낮은 수준이다.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의 비중은 여자 28.0%, 남자 43.8%로 각각 10년 전보다 각각 18.9%p, 22.3%p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19~24세 34.0%, 25~29세 36.1%, 30~34세 39.2% 등이다.

통상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초반에서도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것이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

이 꼽았다. 이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끼(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순이었다.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이들의 비중은 여성(26.4%)보다 남성(40.9%)에서 높았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0.9%로 10년 전보다 19.1%p 높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 비율은 2018년 46.4%, 2020년 50.5%, 작년 53.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과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한 청년은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7.6%, 57.1%로 전체 청년 집단(46.5%)보다 높았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4.1%로 10년 전보다 11%p 상승했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9.8%p 올라 지난해 39.6%를 기록했다.

입양 의사가 있는 청년 비중은 31.5%로 10년 전보다 20.5%p 감소했다.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43.1%),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37.6%) 등이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청년의 8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10년 전보다 긍정 비율이 9.5%p 높아졌다.

‘가족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6%로 10년 전보다 12.6%p 줄었다. 60.7%는 가족·사회·정부가 함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15.0%는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하 2021년 기준)은 수입(35.8%), 안정성(22.1%), 적성·흥미(19.1%), 근무 환경(9.8%) 순이었다.

다만 19~24세 청년은 25~34세 청년과 달리 안정성(19.9%)보다 적성·흥미(24.2%)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호 직장은 2011년에는 국가기관(27.7%), 대기업(19.6%), 공기업(19.3%)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공기업(23.2%), 국가기관(20.8%), 대기업(20.2%)으로 바뀌었다. 공무원보다 공기업 인기가 더 좋아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빛고을 드론 배틀 참가해볼까?”

### 광주시, 9월9~10일 드론경진대회...4개 종목 총상금 500여만원

광주시는 “9월 9-10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3빛고을 드론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열리는 드론경진대회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드론에 대한 과학적 관심과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년째를 맞은 드론경진대회는 총 4개 종목으로 구성된 드론배틀, 팝드론배틀, 배틀드론과 개인 드론 PRC스피드 드론으로 치러진다. 지역·연령에 제한없이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드론배틀은 3명이 한팀으로 구성된 조종팀이 목적지를 통과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격추팀은 조종팀의 드론을 격추시켜 점수 획득을 방해하는 경기방식이다.

팝드론배틀은 2명이 한팀으로 제한시간 동안 랜덤 터치로 많은 스코어를 점령한 팀이 이기

는 방식이며, 배틀드론은 4명이 한팀이 돼 적 외선 송수신기를 통해 배틀하는 경기로 에너지가 소모된 드론은 자동 착륙돼 승패가 갈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대 1 개인전인 PRC스피드드론은 제한시간 내 랜덤으로 켜진 장애물을 먼저 통과해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다.

참가신청은 학생부, 일반부별로 팀은 총 96팀, 개인은 총 32명의 지원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2023빛고을 드론페스티벌’ 누리집(http://2023gjdron.com/, 문의 385-416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회 첫날인 9일 예선전이 치러지며, 대회 마지막날인 10일은 8강전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일반부 9팀과 학생부 9팀, 개인 6명에게 시상하며, 시상상·교육감상 등과 함께 총상금 500만원 상장을 수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켄텍 교수들 “총장 해임 건의 과도한 조처” 비판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부정적으로 왜곡” 입장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교수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왜곡됐고, 총장 해임 건의 또한 과도한 조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켄텍 교수들은 28일 ‘산업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 결과에 대한 교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총장 해임 건의’를 포함한 산업부의 감사 결과 발표로 켄텍에 대한 오해와 격정에 우리 대학 교수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부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많은 부분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이나 부당 집행이 아니라, 대학 설립 초기 업무시스템과 제도·규정이 완벽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카드 사용과 범용성 연구비품 구

매 등을 규정위반으로 지적받았는데, 이는 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부정적 사례로 강조돼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교 전부터 불완전한 시스템과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이끌어온 초대 총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 것은 규정 위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끝으로 “켄텍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의 비전을 믿고 입학한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결집단 단체인 대학이 초대 총장을 중심으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여순사건 피해 신고 7039건...338건 희생자·유족 결정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8월 중순까지 703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위는 이 가운데 1036건의 심의를 마쳐 중앙위원회에 희생자·유족 결정을 의뢰, 338건에 대해 희생자·유족으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6003건과 관련 심사 시스템을 수요자(신고인) 중심으로 개선,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심사위는 그동안 심사 대상 건수 누적으로 희생자·유족 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사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또 신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접수에 관한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 7~8월 초 신고 접수 및 조사·심사현황을 문자로 안내했다.

앞으로 중장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신고인 불편을 덜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10월2일 임시공휴일 與, 정부에 지정 요청 수용서 ‘6일간’ 연휴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농수산물 잔류농약·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28일 오전 광주교육청 급식팀 직원이 광주 북구의 한 식자재 공급업체를 찾아 광주지역 학교에서 사용되는 혼합, 삼치포, 고등어 등 수산물 7종과 농산물 등에서 방사능과 잔류농약 수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 임대시설 개요

- 주 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아리 219-10)
- 면 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책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

목포시 공고 제2023-1460호

## 목포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목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4.  
목 포 시 장

### 1. 목 적

- 목포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 9. 19(화요일) 14:00 ~ 16:00
- 장 소 :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 전 행 : 종합계획 설명, 지정 토론, 주민 의견 청취, 질의응답 등

### 3. 계획의 개요

- 목표연도 : 2033년(2024년 ~ 2033년, 10년)
- 과업대상 : 전라남도 목포시 전역(51.65km<sup>2</sup>, 23개동)
- 주요내용 :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대설·가뭄·해안·기타 9개 유형의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안)

### 4.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각 행정복지센터, 목포시청 안전총괄과 방재팀
- 열람기간 : 2023. 8. 24부터 2023. 9. 7. 18:00까지
-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2023. 9. 7.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 면 : 목포시청 안전총괄과 방재팀
  - 이메일 : sunnggyum88@korea.kr

5. 기타 공표대상 사항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 방재팀(061-270-8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 발전사업허가
  - 발전소설계 (유)지도상생태영향평가인 대양발전소.사업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해당리 1698-7번지의 27필지(총 28필지(내양리 1698-10, 1698-8, 1698-9, 1699-1, 1699-11, 1699-12, 1699-14, 1699-16, 1699-18, 1699-2, 1699-4, 1699-6, 1699-9, 1700-11, 1700-14, 1700-18, 1700-19, 1700-2, 1700-20, 1700-7, 1700-9, 1701-4) 광평리 1614, 1614-1, 1614-6, 1614-7)
  - 발전소 면적 : 418,460㎡
  - 공고기간 : 2023.08.24~2023.08.31(8일)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 40,988kW
  - 사업제시예정일 : 2026년 08월
  - 사업완료예정일 : 2026.08.31(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지도상생태영향평가인 대표이사 홍인훈
-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 2023.08.24~2023.08.31(8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 02-6253-8000 팩스 : 02-6253-7777
    - E-Mail : help@soulineergy.co.kr

##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3년 7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하고 2023. 7. 24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29일  
주식회사 티피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8, 비동 303호(상덕동)  
청산인 윤영욱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송영애(500106-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본촌백미로30번길 42(본촌동)
- 피상속인 망 송영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2023년 단 3848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8월 29일
- 상속인 : 1.이정기(710203-XXXXXX) 양주시 남면 개너리길 21, 102호 2.이정경(721223-XXXXXX)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평로 41, 904호 (무지개마을) 3.이홍기(750527-XXXXXX)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22, 103동 202호 (한성전주마을)
- 신고기간 : 2023. 8. 29 ~ 2023. 11. 8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3. 이홍기의 주소

##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정135 명예훼손
- 피고인 : 박주아
- 위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 2023년 8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희범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